



멕시코에서 보내는 편지

2026년 3월호. 이병호/최영진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정세와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놀래 키는 소식들과 그로 인한 긴장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간의 짧은 소식을 전합니다. ♥

◆ 파시피코 교회 사역

지난 2개월 사이에 파시피코 교회에 두 가정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성도들의 출석이 저조하여 예배 인원은 여전히 10여 명 수준입니다. 새로 등록한 두 가정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도 계속 진행 중이며,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6명이 출석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출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지난 2년간 이어져 왔으나, 작년 하반기에는 호세 목사님의 사정으로 중단되었고, 올해 2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 멕시코 중부에서 마약 카르텔 두목이 체포 과정에서 사살되었고, 그 영향으로 티후아나에도 경비령이 내려져 학교들이 휴교하고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이는 카르텔이 정부를 상대로 보복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경찰의 상당수가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만큼 부패가 심하며, 카르텔을 건드릴 경우 도로 봉쇄, 차량 방화, 총격 등 보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소 진정된 듯 보이지만, 현지인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안 문제로 인해 부모가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어린이 초청잔치에는 어린이 24명보다 더 많은 30명 이상의 어른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는 모두 안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60여 명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할 것인지, 어떻게 부모들의 마음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목회자들의 공통된 문제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 목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 목사님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따로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책가방과 맛있는 점심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 전도 초청 잔치 †

예수사랑 사랑사랑 예수증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4:12)

◆ San Quintin(산킨틴) 방문

산킨틴은 이곳에서 차로 약 4~5시간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약 4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시골이라 조용하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처럼 티 없이 맑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안아주고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이곳에 간 이유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교재와 주일학교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잘 정착시켜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첫 날은 이곳 청소년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에는 최선교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수업을 진행 했습니다.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들의 사역을 티후아나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이곳의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많은 숙제거리를 안고 왔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거의 전무한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예배 사역이 더 풍성해 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



◆ 마약 재활센터

지난 3월 첫 주에 마약재활 센터에 갔습니다.

Rosarito(로 사 리 토) 에 있는 재활센터에는 약 50~100여명의 입소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매달 인원이 달라짐) 사설 재활센터이지만 센터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만 친구 선교사부부가 이곳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시간이 될 때 가끔 사역에 동참 하곤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인 4월부터는 매주 이곳에서 같이 예배 및 말씀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센터를 찾는 다른 단체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더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주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 삶을 듣고,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 새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 말씀 사역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이자 선교사인 제가 해야만 하는 책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직은 아주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습, 또 연습을 하며 최대한 자연스러워 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큰 부담인지 설교를 하고 나면 입술이 부르트거나 이석증을 앓곤 합니다. 이번에도 파시피코 교회와 산간민에서 설교를 한 후에 입술이 부르텠습니다.

영광의 훈장이라 생각하며 설교를 해도 입술이 부르트지 않을 그 날을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



◆ 선교센터 건축

티후아나의 산 언덕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GP선교사님이 계십니다. 78세 되신 건축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십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이 센터의 건축을 맡아서 마무리 할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GP선교사라 저희에게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기도요청도 보냈었고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선교사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잘 결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네 딸들 이야기

첫째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부모로서 감사하고 기특한 일입니다.

둘째는 미시간 주에 있는 칼빈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감당했는데 본과로 진학을 하려니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학비를 주실 것을 저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으로 학업과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길을 지혜롭게 선택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고단한 미국 생활을 접고 이제 다음주에 검정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막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 현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소서.
- 마약 재활 센터의 입소자들에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약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게 하소서.
- 파시피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되고 방과후 학교가 잘 되도록 도우소서.
- 주일학교 사역에 함께 할 교회가 연결되고, 준비된 교사를 만나게 하소서.
- 자녀들이 믿음위에 든든히 서고, 섬기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 하진이의 학업을 인도하시고, 이번주에 있을 하민이 검정고시를 잘 치르도록.